

혼전동거, 관습으로 어루만지다

- MBC '옥탑방 고양이' 의 묘수

김선님

관습적인 너무나 관습적인

지난 봄 우리는 그야말로 재미난 드라마를 한 편 만날 수 있었다. MBC-TV의 '옥탑방 고양이' 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재미솔솔한 입담꺼리로 떠올랐다. “김래원이 미소 예술 아니냐?” “이현우 옷발 죽이지..” 와 같은 가벼운 농에서부터 시작해, “말이 좋아 혼전동거지....제목을 ‘청춘남녀 사리쌍기’ 썸으로 정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나가는 소리로 듣기엔 일침이 있는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인구에 회자되는 드라마가 되었다.

'옥탑방 고양이' 는 젊은 청춘남녀의 '혼전동거' 라는 다소 신선하면서도 선정적인 소재로써 이른 주목을 끌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이미 넘쳐날만큼 넘쳐나 진부해질 대로 진부해진 멜로 장르의 그것-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정형화된 멜로물은 '사랑과 야망, 그 타락한 욕망의 속내' 썸으로 보여진다-과 차별화 되면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이 드라마 또한 전체적으로 멜로 장르의 관습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멜로물이 기가 막히게 절묘한 우연의 짜증스런 반복으로 시청자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면 이 드라마는 최근의 흥행 코드이자 트렌드가 되어버린 '코믹' 을 잘 버물려 '건강한 청춘남녀의 건강한 연애담' 으로 시청자들을 집중케 만들었다. 게다가 이 드라마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김래원이라는 젊은 남자 배우의 건강한 몸과 미소는 확실한 시너지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높은 시청률로 반영돼 2003 봄 시즌 인기 드라마로 기록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혼전동거' 라는 소재 또한 지금의 사회상을 적절히 반영한 시의성 있는 소재로 평가되었으며 타 방송사에는 '혼전동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소재가 신선하다고 해서, 몇몇 에피소드가 기존의 드라마와 비교해 조금은 현실적이었다고 해서, 그리고 재밌었다고 해서, ‘옥탑방 고양이’에 대해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기엔 뭔가 찝찝한 구석이 남는다. 즉 ‘혼전동거’라는 소재로 우리사회의 갑갑증 나는 터부를 공중과라는 매체에서 건드렸다는 치더라도, 그리고 두 남녀 주인공의 연애담이 현실의 그것과 닮아 신선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다 치더라도, 여전히 TV 드라마의 전형성 그 이상의 것은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기존의 드라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선한 면이 없지 않으나 실제의 모습은 철저하게 멜로드라마의 관습적 장치와 구태로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혼전동거라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사회에서 쉽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어선지 이 혈기왕성한 두 청춘남녀의 성생활은 마치 오누이처럼 정리되었고, 이야기의 한 축인 남정은(극중 정다빈 분)에 대한 이동준 실장의 사랑 또한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구애의 대상이 되고자 욕망하는 많은 여인네들의 그것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검사가 된 김경민과 짝을 맺어주기 위해선지 아님, 드라마의 깔끔한 결말을 위해선지 남정은은 로또와 같은 운으로 돌연 외국연수를 떠나고, 2년 만에 귀국해 팀장의 자리에 오른 후, 걸모양새까지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이 되어 젊은 검사 김경민(극중 김래원분)과 재회를 한다. 이 얼마나 전형적인 드라마의 모습인가!

결과적으로 ‘옥탑방 고양이’는 그 신선한 소재까지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상업적 전략이었으며 시청률 지상주의라는 절대벽 앞에 겸허히 무릎꿇은 또 한편의 드라마가 되었을 뿐이다. 과연 TV 드라마에서 대안적 삶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까?

혼전동거에 동거는 없다.

우선 ‘옥탑방 고양이’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청춘남녀가 동거를 한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이전의 TV 드라마에도 젊은 남녀의 한방살이가 종종 등장했었지만 이렇듯 전면적으로 혼전동거

라는 상황을 앞세우는 드라마는 없었던 것 같다. 혼전동거라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그래서 궁금해지는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기심은 드라마 초반에 시청자들을 TV 앞에 붙잡아두는데 적잖은 요인이 되었을 듯 싶다. 현재의 연애방식과 결혼제도에 갑갑증과 답답함을 느끼는 많은 현실의 성인남녀들에게 대안적인 방법론으로 눈여겨 볼만한 소재로 다가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전체적인 억압구조 속에서 누구들 일탈이나 해방을 꿈꿔보지 않았겠는가?)

또한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문화의 흐름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아마도 ‘옥탑방 고양이’의 원작이 바로 인터넷 소설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또한 미니시리즈 ‘옥탑방 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그 성향과 취향이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까다로운 네티즌으로부터 재미난 이야기거리로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시세말로 뜨는 인터넷 소설의 첫 번째 덕목은 ‘재미’에 있다. 게다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혼전동거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미 큰 방향을 일으켜 화제가 되었다. ‘동거사이트’, ‘동거커플’의 성행이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더욱이 이 이야기가 원작자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옥탑방 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니시리즈 ‘옥탑방 고양이’는 철저하게 공중과 드라마의 본연에 충실할 따름이다. 사회적 논란이 두려워서였는지 남녀 주인공 정은과 경민은 술기운에, 분위기에 실수로 쓰러져 단 한차례의 잠자리만 있을 뿐 그 이후 이들의 생활은 티격태격 오누이의 옥탑방살이로 정리되어 버린다. 혼전동거에 대한 사실감 나는 묘사를 기대했던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또 한편의 명랑만화속 연애놀음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증하는 이혼율로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해 어느 시기보다 논란이 분분하다. 이러한 시기에 억압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혼전동거를 좀더 현실적으로 그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혼전동거라는 설정 속에서 ‘성적 동기’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은 이 드

라마의 정체를 흐리게 한다. 이 드라마는 혼전동거라는 소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혼전동거라는 상황에 빠진 남녀 주인공과 그 주변인들의 에피소드가 이 드라마의 전부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 속엔 성인남녀의 합리적인 ‘성적욕망 해소’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일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통념 속에서 혼전동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성생활’ 이 배제된 설정은 다소 우스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는 소재에 대한 일반의 호기심만을 착용했다는 혐의와 함께 사회적 논란에 대한 부담을 손쉽게 넘어가려는 속계산이 엿보인다.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도 필요 없다. 단지 은유적인 묘사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혼전동거 상황임을 분명히 하는 장치로써 ‘성’을 잘 선용하고 제도권 밖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곤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혼전동거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야 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통념에 대한 성급한 견제 때문인지, 또 논란의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인지 혼전동거 설정에 혼전동거와 그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모든 드라마에서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삶의 모습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삶속의 허위와 부조리를 얼마나 쉽게 목도할 수 있는 시절인가!

혼전동거는 여성에게만 불편하다.

젊은 남녀가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 그것이 열렬한 사랑 때문이건, 경제적 이유에서이건 혼전에 동거를 한다는 사실에 전체 사회가 불쾌한 시선을 보낸다. 오로지 혼전동거를 실행한 여성에게만.....

이러한 사실은 드라마 곳곳에서 보여진다. 아니 어찌 보면 전체 이야기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남정은과 이경민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이는 한동안 비밀에 붙여진다. 우연한 계기로 사실이 알려지고 이후 주변의 반응은 우리사회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은의 부모는 딸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는 듯이 낙담해 빠진다. 속물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캐릭터로 크게 어필한 정은의 엄

마(김자옥분)는 강제로 경민에게서 혼인서약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하고 딸의 희망줄 인양 고이 간직할 정도이다. 반면 경민의 보호자로 등장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태도이다. 손주가 편하고 좋다면 손해볼 것 없는 장사라는 듯 배짱두둑하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가 혼전동거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 또한 관습적 통념에 의해 처리함으로서 사실성을 담보해냈지만 이를 다소 코믹스럽게 다루고 있어 그 현실적 어려움을 빚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된 몇몇 재미난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저 혼전동거는 여성에게 몹시도 불편하다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확인들뿐이다. 다양한 삶의 양식의 하나로 동거를 계획중인 여성이 보았더라면 그 실행을 주춤거리게 할 만큼 드라마 속 정은은 부모에게 몰매맞아 마땅하고 친구에게 멸시받아도 당연한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정은이 경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는 모습이라든가, 정은이 자신의 의지로써 삶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모습과 같은(그것이 다소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더라도) 가치 있는 미덕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양성 불평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 혼전동거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을 사실감있게 그려내 우리네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점은 평가할만하나 ‘코믹’이라는 트렌드에 치우쳐 불평등한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발생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드라마는 코믹적 요소의 효과적인 배치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쾌한 웃음 속에서도 삶의 진정성으로 건드리는 묘미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

그의 사랑 앞에선 혼전동거는 문제도 아니다.

‘백마탄 기사’는 성공한 드라마의 불문율이다. 모든 여자는 사랑을 욕망한다. 그것도 누군가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욕망의 소구를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백마 탄 기사’는 높은 시청률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의 조건과 그의 사랑이 시청자들 특

히 여성 시청자들의 구미를 자극하는 것이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백마 탄 기사 역할을 맡은 이동준 실장 또한 그 전형성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다. 조상부터 부자인 집안의 아들로, 남녀상열지사를 칙칙하게 만드는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며, 세계각지의 친구들과 다수의 외국어에 능통한 유학파이며, 말끔한 외모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요사이 드라마 속 백마 탄 기사들의 필수품은 최신형 외제차를 기본으로 장착한 인물이다. 사실 그 감정의 시작이 어디서 도무지 확인할 바 없지만(오랜 싱글생활 끝에 공원에서 건네 받은 초라한 남정은의 도시락에 제대로 감동을 받아서인지)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정은에 대한 끊임없는 퍼대기식 사랑은 정말이지 감동이 아닐 수 없다. 현실속 꼬질꼬질한 우리네 남자 친구들의 그것과 어찌나 비교가 되는지....

게다가 옥탑방 고양이의 ‘백마 탄 왕자’ 이동준 실장은 이전의 술한 왕자들이 보여줬던 ‘사랑=소유’라는 보수성을 뛰어넘는 미덕을 보여주며 독보적 ‘백마 탄 왕자’의 기개를 드높인다. 이동준 실장은 오랜 외국생활 속에서 익힌 도회적 세련됨 때문인지 여주인공 정은이 혈기왕성한 경민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번 옥탑방까지 극중히 모셔다 드리는 장면을 몇 번이고 연출한다. 그는 철인과 같은 인내와 질긴 기다림으로 정은을 아끼고 또 아낄 뿐이며,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 통념 때문에 정은이 겪고 있는 모든 고초까지 함께 하고자 할 뿐이다. 정말이지 혼전동거를 소재로 시작된 드라마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최상의 ‘백마 탄 왕자’가 아닐 수 없다.

극중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여주인공의 혼전동거에 불편해하지만 ‘백마 탄 왕자’ 이동준 실장의 사랑 앞에선 하나의 장애물로 치부될 뿐이다. 시청률을 의식한 완벽한 ‘백마 탄 왕자’의 구현을 위해서인지 사랑하는 여자의 ‘혼전동거’라는 초유의 사태도 초인적인 힘으로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단 맹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혼전동거는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니시리즈 ‘옥탑방 고양이’ 성황리에 방영중일 당시 타방송국에서 혼전동거에 대한 토론을 벌인적이 있었다. ‘동거커플’ 과 ‘동거사이트’ 성황리에 활약(?)중인 지금의 실태를 이야기하며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적인 결혼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에 ‘옥탑방 고양이’의 원작자가 이제는 그녀의 남편이 된 당시의 동거남과 함께 패널로 참여하고 있었다. 당당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만약 그와 그녀의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녀가 지금처럼 공중파에 나와 떳떳하게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만약에 그녀의 동거가 결혼이라는 제도권속으로 안착하지 못했다면 그녀의 프로필은 인터넷 작가가 아닌 투사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남녀 주인공도 이러한 사회의 암묵적 강제를 실행함으로써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 혐의를 훌훌 벗어 던진다. 드라마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정은은 경민을 맘에 품은 채 이동준 실장의 물질적 후원은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애매한 태도를 초지일관 보여준다. 결국에는 해외 연수라는 ‘로또’를 제시하는 이동준 실장의 손을 넘죽 잡고 대망의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세월이 흘러 임시 고용직에서 간부급으로 급출세한 정은이 이제는 패기넘치는 젊은 검사가 된 경민의 품에 뛰어드는 것으로 결말짓는다. 내내 정은과 경민을 괴롭혔던 혼전동거라는 께끄러움은 낭만적 포용으로 암시되는 사랑의 완성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정은과 경민이 그들의 옥탑방에서 포옹하는 마지막 씬을 통해 제작진은 혼전동거 설정에 대한 남은 부담을 완전히 털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씬은 젊은 시청자들의 신분상승과 출세에 대한 갈증나는 욕망을 채워주고 있으며, 결혼은 비슷한 계층끼리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세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혼전동거라는 비판습적 설정에서 시작된 ‘옥탑방 고양이’는 모든 논쟁거리를 관습적 사고에 기대어 해소하는 잔재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혼전동거로 인해 발생된 드라마의 잦은 갈등상황이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듯한 통념적 수준에서 처리됨으로써 그 사안이 지닌 문제의 본질과 대안적 사고의 작동을 제거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는 대안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옥탑방 고양이’는 혼전동거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열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드라마의 시작을 알렸다. 이 드라마는 혼전동거라는 상황에 빠진 두 남녀 주인공의 말 못할 속내와 사회적 통념상 이를 쉬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변인들의 시끌벅적 에피소드가 이야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혼전동거는 이 드라마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옥탑방 고양이’는 혼전동거를 앞세워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장치였을 뿐 그 본질에 대해선 눈곱만큼도 건드릴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애초 기획의도가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대안적 방식으로서 혼전동거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관습적 장치들과 사회적 통념에 기반하여 혼전동거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그저 재미난 드라마로 만들어 버렸다는 아쉬움이 크다. 사실 조금만 상상력을 발동시켜봐도 경제력이 변변찮은 젊은 남녀의 동거가 얼마나 낭만적일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알다시피 현실은 늘 만만찮은 무게로 생활인의 얼굴을 그늘지게 한다. 그러나 ‘옥탑방 고양이’속 두 주인공의 혼전동거는 정말이지 ‘참 재미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이 그려진다. 또한 그 주변의 반응 또한 그저 ‘코믹’ 일색으로 그려짐으로써 ‘재미’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드라마가 되어 버렸다.

앞에서도 논의된 부분이지만, 분명 이 드라마를 풀어나가는 중심엔 혼전동거가 명명백백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의 남녀가 노골적인 성생활을 즐긴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듯 극중 주인공들의 동거는 마치 어린시절 소꿉놀이처럼 그저 알콩달콩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공중파에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사회적 금기를 건드릴 의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듯이 말이다. ‘옥탑방 고양이’에 혼전동거는 없다.

또한 여주인공 정은이 자신의 동거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주변인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통해 이 드라마의 보수적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혼전동거는 여성에게만 불리하다는 사회문화적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음을 드라마 곳곳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여전히 자유로운 성의 가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며 자기의지로 삶을 결정하는 일조차 남성의 것이라는 듯이 두 주인공에게 가해지는 주변의 시선, 즉 사회적 시선은 분명 극한 차이를 보고 주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대해 정은의 입을 통해 토로하는 한 장면이, 그것이 만취 끝에 웅얼거림이라도, 절실한 사회이지 않는가!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는 ‘백마 탄 왕자’의 투입에도 공을 들여 멜로물의 관습적 장치를 십분 활용하고 있으며, 임시 고용직과 예비 검사의 결합이 용납되지 않았는지 친절하게도 여주인공을 신분상승시킨 후 검사가 된 남자주인공과 결합시킴으로써 이 드라마의 보수적 성향을 또다시 확실히 하고 있다.

드라마가 반드시 가치전복적 사고를 꾀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드라마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그 소재가 지금의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승인되지 못한 대안적 삶의 양식을 소재로 다루었다면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모색이 조금이라도 녹아 들어갔어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한, 왜 요즘의 드라마들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지닌 많은 시청자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구태만을 반복하는지 일선의 제작진에게 말하고 싶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혼전동거를 경험했거나 실행중이거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그가 바로 여성이라면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사회적 통념만은 눈여겨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 말하고 싶다.

이 재미난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이라는 최고목표를 달성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혼전동거를 소재로 채택했다면 이에 대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안모색의 차원 속에서 드라마를 끌고 나가는 의지가 담겨있어야 했다. 혼전동거라는 사회적 쟁점과 그 당사자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변인의 반응 속에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대안적 의식을 투영시킴으로서 좀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